creative commons

COMMONS DEED

저작자표시-비영리-변경금지 2.0 대한민국

이용자는 아래의 조건을 따르는 경우에 한하여 자유롭게

- 이 저작물을 복제, 배포, 전송, 전시, 공연 및 방송할 수 있습니다.

다음과 같은 조건을 따라야 합니다:

저작자표시. 귀하는 원저작자를 표시하여야 합니다.

비영리. 귀하는 이 저작물을 영리 목적으로 이용할 수 없습니다.

변경금지. 귀하는 이 저작물을 개작, 변형 또는 가공할 수 없습니다.

- 귀하는, 이 저작물의 재이용이나 배포의 경우, 이 저작물에 적용된 이용허락조건을 명확하게 나타내어야 합니다.
- 저작권자로부터 별도의 허가를 받으면 이러한 조건들은 적용되지 않습니다.

저작권법에 따른 이용자의 권리는 위의 내용에 의하여 영향을 받지 않습니다.

이것은 이용허락규약(Legal Code)을 이해하기 쉽게 요약한 것입니다.

Disclaimer

dCollection

박 태 성 교수 지도
석사학위 청구논문

음영(陰影)을 이용한 도자 하회장식 연구

- 청화기법을 중심으로 -

2019

성신여자대학교 대학원
공 예 학 과
이 현 지

음영(陰影)을 이용한
도자 하회장식 연구

- 청화기법을 중심으로 -

박 태 성 교수 지도

이 논문을 석사학위논문으로 제출함

2019년 5월

성신여자대학교 대학원
공 예 학 과
이 현 지

인 준 서

이현지의 석사학위 논문으로 인준함

2019년 5월

심사위원장 _____ (인)

심 사 위 원 _____ (인)

심 사 위 원 _____ (인)

성신여자대학교 대학원

논 문 개 요

햇빛과 그 빛에 따른 사물의 그림자, 또 시원하게 불어오는 바람과 바람이 나뭇잎을 스치며 나는 소리 등, 우리 주변에서 스스로 일어나는 모든 자연현상들은 바쁘게 흘러가는 일상 속 곳곳에서 끊임없이 변화하며 우리와 공존하고 있다. 인간의 손길이 전혀 닿지 않고 자연계에서 스스로 일어나는 현상들은 현대 사회의 수많은 인공물과 기계들에 대비되어 현대를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편안한 감정을 느끼게끔 하고 많은 예술가들에게 영감을 불러일으킨다고 생각된다.

본 연구자는 수많은 자연현상 중 '그림자'에 주목하였으며, 도자기 장식으로서 기존에 보이던 상업적 도자장식과는 달리 그림자의 속성을 바탕으로 풍부한 감성과 공간감을 부여하여 장식성은 물론 하나의 오브제로서의 가능성을 제시하고자 하였다.

본론에서는 그림자의 객관적 사실을 파악하기 위해 음영(陰影)의 정의와 속성을 알아보았다. 그림자에 대한 '어둡다'라는 부정적 인식보다는 나무 그늘처럼 편안한 감성을 전달하는 긍정적 인식으로 해석하여 작품에 표현하였고, 속성은 크게 시간성, 단순성, 확장성으로 나누어 정의하고 구체적 사례를 들어 각 속성들이 어떻게 적용되는지 살펴보았다. 또한 일상 속 여러 가지 그림자 형상의 사례들을 통해 사물과 그림자의 투영관계에 대하여 알아보았으며, 특히 광원과 사물의 투영에 있어 관찰자의 위치에 따른 관찰방법을 제시하여 이에 따른 그림자느낌의 특징을 문양으로 형상화하였다. 또한 청화기법을 이용하여 도자 장식문양으로서의 활용 가능성을 확인하였다.

작품 제작은 백자기물에 청화안료를 사용한 청화백자를 기본으로 하였으며, 그림자의 소재는 주로 식물을 사용하였다. 사물과 그림자의 투영관계에서 얻은 결과를 바탕으로 도안을 제작하였으며, 작품의 형태는 그림자의 표현이 극대화되도록

평평한 도판형식이나 원기둥 등의 미니멀한 형태로 제작하였다. 형태의 제작요건에 따라 석고기법과 물레성형에 의한 기물을 복합적으로 활용하였다. 그림자 표현으로는 청화안료를 사용하였으며 농담기법과 담금기법을 위주로 하여 발수제 등과 붓의 활용을 통해 새로운 도자 장식 기법을 제안하고자 하였다. 이와 같이 그림자의 속성 파악과 이를 바탕으로 그림자의 감성을 극대화할 수 있는 표현방법을 모색함으로서 사용자가 일상생활 속에 사용은 물론 그림자를 통한 제작자의 감성을 전달할 수 있다는 가능성을 확인하였다.

목 차

논문개요

Ⅰ. 서론 ····· 1

1. 연구동기 및 목적 ····· 1

2. 연구방법 ····· 1

Ⅱ. 본론 ····· 3

1. 음영(陰影)의 정의 및 속성 ····· 3

2. 사물과 그림자의 투영관계 ····· 6

3. 제작방법 ····· 11

4. 시작품 ····· 16

Ⅲ. 결론 ····· 27

참고문헌

ABSTRACK

표 목 차

【표 1】 그림자의 속성 ····· 5
【표 2】 그림자의 직접적 관찰 ····· 9
【표 3】 그림자의 간접적 관찰 ····· 10
【표 4】 문양디자인 제작과정 ····· 11
【표 5】 농담표현기법 제작과정 ····· 14
【표 6】 담금기법 제작과정 ····· 15

그 림 목 차

【그림 1】 직접적 관찰자 시점 ····· 8
【그림 2】 간접적 관찰자 시점 ····· 8

시 작 품 목 차

【작품 1】 벚꽃 합 ····· 16
【작품 2】 벚꽃, 철쭉 화병 ····· 17
【작품 3】 철쭉 접시 ····· 18
【작품 4】 매화 접시 ····· 19
【작품 5】 Cherry blossoms plate ····· 20
【작품 6】 Blooming shadow cup ····· 21
【작품 7】 Daisy plate ····· 22
【작품 8】 드리우다 ····· 23
【작품 9】 나무아래 주병세트 ····· 24
【작품 10】 꽃의 내면 ····· 25
【작품 11】 창가에서 ····· 26

Ⅰ. 서 론

1. 연구동기 및 목적

모든 사물은 빛에 의해 형상과 색, 질감 등을 느낄 수 있으며 그것은 음영을 통해 더욱 구체화된 이미지로 인식되게 된다. 따라서 빛의 조도와 위치, 범위에 따라 사물의 윤곽이 결정되며 배후의 투영된 그림자를 통해 다양한 영감을 전달할 수 있기에 조형적 표현의 수단으로 사용될 수 있다고 생각된다.

본 연구에서는 빛이 사물에 투사되어 반영된 그림자를 통해 사물에 대한 감정이입과 의도에 의한 의미 있는 공간구성을 시도하고자 하였다.

일반적인 도자기의 장식으로는 유약, 그림, 조각 등이 주를 이루고 있으며 특히 제품용 도자기의 대부분은 평면적인 그림이 들어가 있거나 패턴으로 장식되어 있어 예쁘고 아름다운 느낌 이상의 공간감을 표현하기에는 제한적일 수 있다. 도자장식에 있어 작품 또는 제품의 사용용도와 가치의 표현 이상의 감정이입 수단으로서 빛과 그림자에 의한 표현방법을 제안하며 이를 통해 본 연구자의 사물에 대한 감성과 이미지를 제시하고자 한다. 또한 표현과정에 있어 극히 제한된 공간을 갖고 있는 도자기 표면장식의 표현방법으로 제안함으로서 일상생활의 용도뿐 만아니라 오브제로서의 가능성을 타진하는데에 목적이 있다.

2. 연구방법

본 연구에서는 연구자가 생각하는 그림자의 표현방식과 의미의 강조를 위하여 음영(陰影)에 대한 객관적 고찰을 시도하였으며 이를 바탕으로 크게 세가지의 음영표현방식을 도출하고자 하였다. 구체적으로는 자연의 빛 또는 인공

조명을 사용하여 사물에 대한 투사를 통해 얻어지는 그림자의 형상실험을 실시하였다. 이를 통해 획득한 그림자의 형상을 일러스트화 하여 각 형상에서 느껴지는 감정 및 감성을 토대로 사진 및 드로잉으로 정리하였다. 사물은 주로 식물의 꽃이나 열매를 주요소로 사용하였으며 여백의 공간에는 선을 강조할 수 있는 사물을 선정하여 빛의 방향과 흐름을 표현하고자 하였다. 본 실험에서 얻어진 음영의 형상은 도표로 정리하였으며 여기서 다양한 감정의 표현에 적합한 형상을 선정하여 작품으로 제작하였다.

드로잉에 필요한 디자인방법에 있어서는 사물을 간략화 하여 장식문양으로 작성하였으며 여기에 빛에 투사된 그림자를 더해 최종장식문양으로 제작하여 도표자료로 정리하였다.

작업 과정은 그림자 탐구를 통해 그림자의 특성을 파악하고, 그림자를 표현하기에 적합한 도자 하회 장식을 연구하였다. 기형(器形)으로는 일상생활에서 두고 바라볼 수 있는 화병과 합, 그리고 식기로 사용하거나 또는 사용하지 않을 시에 벽이나 장식장 안에서 오브제의 역할도 가능한 접시, 컵 등을 물레성형과 슬립캐스팅을 병행하여 제작하였다. 하회(下繪) 장식의 도안은 일러스트레이터 프로그램을 이용해 데이터로 작성하였으며 청화기법을 주된 기법으로 하여 공간감을 표현할 수 있는 색감에 대해 발색실험을 병행하였다.

이상 기술한바와 같이 음영에 대한 깊은 이해와 구체적인 표현방법 연구를 통하여 본 연구자가 표현하고자 하는 감성을 도자작품으로 구체화하였다.

Ⅱ. 본 론

1. 음영(陰影)의 정의 및 속성

음영은 일반적인 사전적 의미로서 그늘과 그림자를 가리키는 말이다. 그늘은 사물에 빛이 닿아 사물의 반대쪽에 광선이 닿지 않아 어두워지는 부분을 말하며, 그림자는 빛이 물체에 가리어 다른 물체표면에 어두운 부분이 생기는 것을 말한다. [1)]

이와 같이 사물에 대한 그늘과 그림자는 반드시 빛을 필요조건으로 하며 주변사물과의 관계 속에 그림자 등의 형상이 나타나게 된다. 또한 광원의 특징에 따라 사물은 다양한 형상의 그림자를 생성하여 보는 이로 하여금 다양한 감정을 느끼게 한다.

그림자는 실재(實在)하고 있는 물체가 아니지만, 우리는 그림자가 있기 때문에 그 사물이 실재한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즉 사물의 형상이 빛과 시간 그리고 주변 환경 요소에 따라 다양한 그림자의 형상으로 나타남으로써 실재하는 사물에 대한 이해를 도와주고 다양하게 나타나는 그림자의 형상은 어떤 면에서는 매우 조형적이라고 할 수 있다. 따라서 그림자의 속성과 투영구조를 파악하여 인위적인 조절이 가능하다면 조형적 표현에 적합한 형상을 만들어낼 수 있다고 생각된다.

본 연구에서는 그림자가 갖는 특성을 시간성, 단순성, 확장성 등으로 나누어 그 의미를 파악하고자 하였으며 내용은 다음과 같다.

① 시간성 : 광원이 햇빛일 경우에 해당되며 시간의 흐름에 따라 해가 강렬해지거나 옅어지고 또 날씨에 따라 빛의 세기도 달라지면서 그림자의 형태, 모양, 크기는 시간의 흐름에 따라 끊임없이 변화한다. 즉 시간의 흐름

1) 두산백과사전 두피디아 (http://www.doopedia.co.kr)

에 의한 자연의 변화는 빛의 속성에 큰 영향을 주며 이는 다양한 그림자의 형상과 분위기로 나타난다.

② 단순성 : 그림자의 가장 대표적인 특성이라고 할 수 있다. 3차원의 사물이 빛을 받아 물체가 가려지면서 그 뒷면의 어두운 부분 즉 그림자가 형성되며 그 형태는 단순한 2차원의 형태로 나타나게 된다. 3차원으로 이루어진 사물은 그 생김새를 파악할 수 있는 반면 2차원의 그림자는 아무런 꾸밈이 없어 오히려 그림자의 대상에 대한 것을 유추하며 그 사물에 대해 더 많은 생각을 할 수 있는 공간이 된다. 또한 그림자의 단순화된 형상은 광원의 종류(직사광, 반사광, 산란광)에 따라 크기와 분위기에 영향을 미친다.

③ 확장성 : 그림자는 광원과 빛을 받는 대상의 관계에 따라 그림자의 크기나 농도가 좌우된다. 즉 광원의 크기가 대상의 크기보다 작을 때에는 그림자가 크게 확대되어 나타난다.[2] 이러한 확장된 그림자의 형상은 본래의 사물이 갖고 있는 이미지와는 사뭇 다른 이색적인 형상으로 나타나는 경우가 있다.

그림자의 특성을 파악할 수 있는 구체적인 사례를 다음과 같이 사진과 함께 도표로 정리하였다.

2) 임선녀, <패션디자인에 표현된 그림자의 조형미 연구>, 홍익대학교 석사논문, 2015

【표 1】 그림자의 속성

<table>
<tr><td> </td><td> </td><td> </td></tr>
<tr><td colspan="3">오후 4시경, 베란다로 들어오는 자연광 아래에서 화분을 돌려가며 촬영하였으며, 이 세 가지 사진에서는 식물의 위치에 따른 그림자의 변화를 확인 할 수 있다. 식물의 형태는 하나이면서 변화하지 않지만, 식물의 그림자는 피사체의 위치에 따라 다양한 각도로 변화하며 조형적으로 흥미로운 형상을 나타낸다. 이는 식물의 형태가 주는 객관적 사실에 그림자의 형상이 더해짐으로서 좀 더 풍성한 이야기를 담을 수 있는 가능성을 볼 수 있다. 또한 위에서 정의한 그림자의 속성 중 단순성과 각도에 따라 확장되는 확장성을 확인 할 수 있다.</td></tr>
<tr><td colspan="2"> </td><td> </td></tr>
<tr><td colspan="3">위 두 사진은 오후 2시경, 5분의 간격을 두고 촬영한 사진이다. 날씨는 맑음과 동시에 구름이 많이 떠 있는 날이었으며, 왼쪽 사진처럼 태양이 강하게 내리쬘 때에는 그림자의 형상도 짙고 선명하게 나타나는 반면 잠시 후 오른쪽 사진처럼 태양의 빛이 구름에 가려지면서 그림자의 형상도 흐릿해 지는 것을 확인 할 수 있다. 이러한 그림자의 명도 변화에서 연구자는 기쁨과 슬픔 비슷한 감정을 느낄 수 있었으며, 이러한 짙고 흐린 그림자의 명도를 이용하여 어떠한 감정이 담긴 조형적 표현이 가능하다는 것을 확인하였다. 또한, 위와 같이 그림자는 시간성과 단순성, 확장성의 특징을 갖고 있음을 알 수 있다.</td></tr>
</table>

이상 살펴본 바와 같이 본 연구에서는 그림자의 다양한 속성들 중 시간성, 단순성, 확장성에 주목하였으며 위의 3가지 속성을 이용하여 디자인 제작방법을 제시하고자 하였다. 또한 그림자가 갖는 객관적 속성이외에 그림자의 의미에 대한 연구자의 사고와 주관적 해석을 더하여 작품 속에 고유의 스토리와 감성을 부여하고자 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그림자의 부정적 이미지라고 할 수 있는 어두움, 불행, 우울, 근심 등에서 벗어나 보다 긍정적인부분을 강조하고자 하였다. 예를 들어 그림자에 대한 광원의 이미지를 단순한 빛이 아닌 '따사로운 햇살' 또는 '편안함'으로 정의함으로서 모든 표현대상을 긍정적으로 묘사하고자 하였다. 주요 소재로 사용된 식물의 표현에 있어서도 빛과 함께 했을 때 식물의 그림자가 만들어내는 아름다운 자연현상에 집중하였고, 이를 통해 보는 이로 하여금 편안한 감정과 그림자가 나타내는 조형적인 아름다움에 눈이 즐거워지는 효과를 기대하였다. 이렇게 자연현상 속 식물의 그림자는 빛, 바람과 함께 일렁이며 아름다운 그림을 만들어낸다. 또한 그림자는 주변 어디에나 존재하며 우리 삶과 항상 함께하고 있기 때문에 각각의 사물과 함께 아름다운 풍경을 만들어 일상 속에 기분 좋은 편안함과, 뜨거운 햇빛 아래 쉴 수 있는 공간을 만들어 주는 등 긍정적인 영향을 준다고 생각된다.

이와 같이 그림자의 객관적 속성을 연구자의 긍정적 감성을 바탕으로 하는 주관적해석하에 작품소재의 선정, 광원의 투사방법, 의도화된 그림자 형상 등을 구체화하여 표현의 수단으로 활용하였다.

2. 사물과 그림자의 투영관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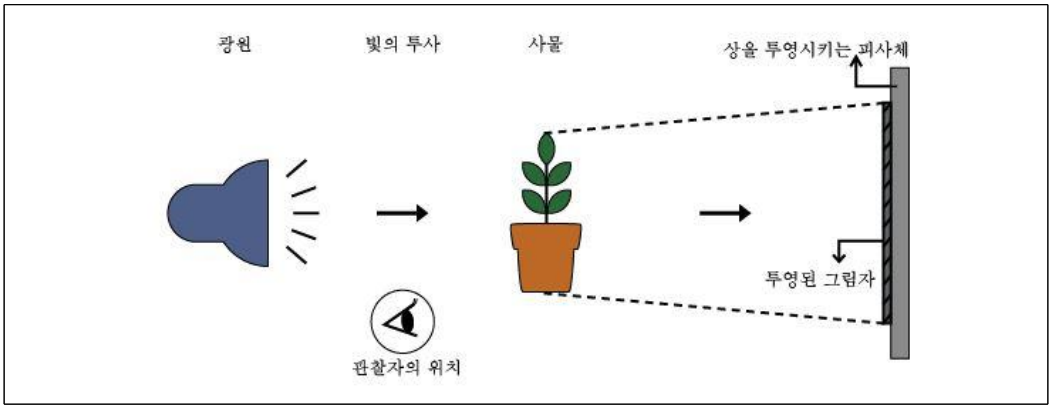
그림자는 광원의 투사방법에 따라 그 형상과 크기, 농도가 다르게 나타난다. 또한 1장에서 정의한 그림자의 3대속성(시간성, 단순화, 확장성)에 의해 끊임없는 변화와 다양한 이미지를 만들어낸다.

투영(投影) [3]의 사전적 정의를 살펴보면, 어떤 물체의 그림자가 지면이 되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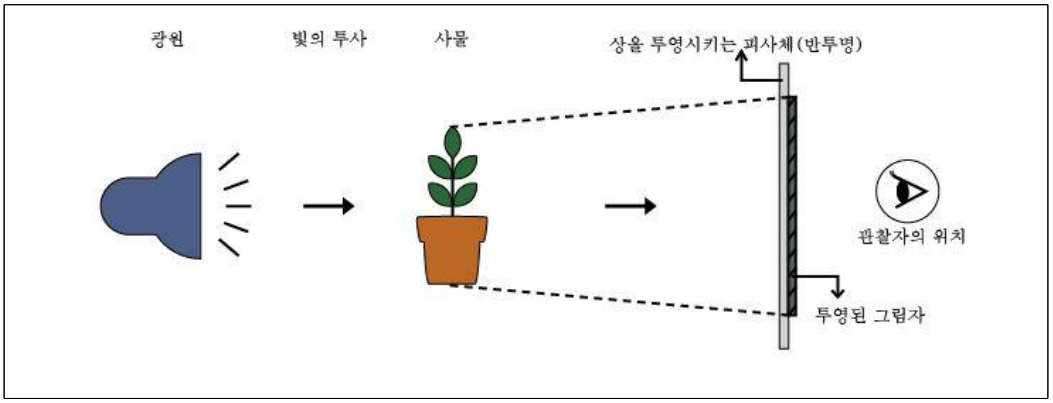
대상 위에 비추는 일 또는 그 그림자를 뜻한다. 본 연구자는 꽃과 나무, 나뭇잎 등을 자연광과 인공조명 아래 비추어 그림자가 공간 또는 도자기의 표면 위에 투영되었을 때 어떠한 효과가 나타나는지 살펴보았다. 특히 그림자의 3대 속성에 의한 변화와 광원의 투사방법에 따른 인위적인 그림자의 형상화 작업에 주안을 두어 작품문양으로의 활용방안을 모색하였다. 그림자의 구체적인 형상화방법은 다음과 같으며 여기서는 관찰자의 위치가 매우 중요하다고 할 수 있다.

1. 빛이 사물에 투영된 그림자의 형상에 있어 관찰자의 위치가 【그림1】 과 같이 빛의 조도범위에서 벗어나 있어 사물과 그림자의 형상을 있는 그대로 포착하는 것이다. 여기서는 관찰자의 위치가 조명에 영향을 받지 않으며 하나의 자연현상을 객관적인 관찰에 의해 그림자의 형상을 포착하는 방법 이라 할 수 있다.
2. 관찰자의 위치가 【그림2】 와 같이 빛의 조도 범위에 들어가 있으며 상을 투영시키는 반투명의 피사체에 투영된 그림자를 관찰하는 방법이다. 이와 같은 그림자형상의 포착방법을 본 연구에서는 위의 1번을 직접적 관찰자 시점이라 하며, 2번을 간접적 관찰자 시점이라 하고자 한다. 사물과 그림자를 있는 그대로 관찰하는 직접적 관찰과 달리 간접적 관찰은 사물이 가려진 채 그림자만으로 나타나기 때문에 비교적 사물에 대한 상상력을 자극하고 또한 작가의 주관적 해석이 들어갈 가능성이 높다.

3) 국립국어원 표준국어대사전(http://stdweb2.korean.go.kr)_투영02



【그림 1】 직접적 관찰자 시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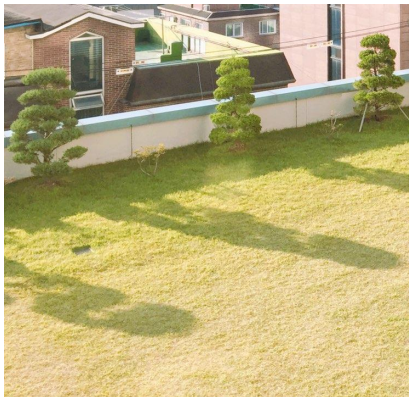


【그림 2】 간접적 관찰자 시점

이와 같이 본 연구에서는 관찰자가 바라보는 위치의 변화에 따라 그림자의 3대속성이 갖는 특징의 변화와 느낌을 연구자의 감성에 더해 문양으로 표현하였다. 구체적인 내용과 그림자의 형상실험은 다음도표와 같다.

1)직접적 관찰자 시점에 의한 형상화작업

【표 2】 그림자의 직접적 관찰

사진	연구 내용
	오후 1시경, 자연광 아래에서 촬영한 사진이다. 오후 1시의 태양은 가장 높은 곳에 떠있고, 그 빛에 따라 나무의 그림자도 벽면을 따라 아래쪽 방향으로 길게 늘어나 드리워지는 모습이다.
	오후 4시경, 자연광 아래에서 촬영한 사진이다. 그림자를 살펴보면 오후 4시의 낮은 해의 방향을 따라 지면으로 길게 떨어지는 그림자를 확인 할 수 있다.
	실내에서 인공조명을 이용하여 목화 꽃의 그림자를 타원형의 초벌 도자기 위에 투영시킨 사진이다. 양감이 두드러지는 목화 꽃과 그에 따른 그림자 또한 양감 있게 표현되면서 꽃과 그림자의 조화가 공간감을 이루며 도자기 안에 장식적인 효과를 낸다.

2) 간접적 관찰자 시점에 의한 형상화작업

【표 3】 그림자의 간접적 관찰

사진	연구 내용
	맑은 날 오후 4시경, 창틀에 있는 화분이 자연광을 받아 방에 있는 커튼에 드리운 그림자를 촬영한 사진이다. 그림자 상을 투영시키는 피사체를 커튼으로 설정하고, 커튼 뒤쪽에 화분을 배치함으로써 커튼을 통해 화분의 그림자가 투영되도록 하였다. 그림자 형상을 살펴보면 어느 방향에 광원이 있으며, 광원의 세기는 어느 정도인지, 또, 그림자 형상으로 나타난 화분의 생김새는 어떤 형태를 하고 있을지 유추해 낼 수 있다.
	맑은 날 오후 3시경, 베란다에 놓여진 화분과 베란다 난간이 자연광을 받아 앞쪽에 배치된 커튼에 그림자가 드리워진 모습을 촬영한 사진이다. 위의 사진에서 평평하게 펼쳐진 커튼과 달리 이 사진 속 커튼은 굴곡져 있으므로 그림자 또한 커튼의 형태에 따라 굴곡진 모습을 확인 할 수 있다. 또한 중첩된 그림자를 통해 단순히 있는 그대로의 '형'을 보는 것 보다 그림자의 형상을 보고 가려진 '형'을 유추해 내는 즐거움을 준다.
	맑은 날 오후 3시경, 창가의 블라인드를 통해 그 바깥에 위치한 나무의 그림자 형상이 투영되고 있는 모습이다. 창가에 가까이 있는 나뭇잎들은 그 외곽선이 선명히 드러나는 반면 비교적 멀리 떨어진 나뭇잎들은 외곽형태가 확장됨과 동시에 흐릿하게 번지는 모습을 확인할 수 있다. 이처럼 그림자형상은 광원과 피사체, 그리고 피사체의 그림자 상을 투영시키는 면의 거리변화로 더욱 더 아름답게 나타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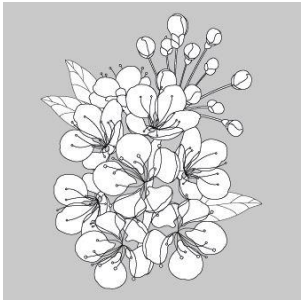
3. 제작 방법

1) 도자 장식의 소재 선택

그림자 표현의 소재로는 일상 속에 흔히 볼 수 있는 식물을 선택하였다. 식물은 일상생활에서 흔히 볼 수 있고 그림자가 주는 편안함에 대한 대상으로 적합하다고 판단하였다. 우리의 일상 속 어디에나 있지만 바쁘게 살아가는 현대인들은 자연물이 주는 아름다움을 그냥 지나쳐 버리는 경우가 많다. 주변의 자연물을 주의 깊게 관찰하고 연구함으로서 햇빛과 함께 할 때 생기는 그림자의 아름다움을 도자기에 조형적으로 표현하여 현대인들이 작품을 보고 자연을 한 번 더 되돌아보는 계기가 되도록 하는 것이 목적이며 그 목적을 바탕으로 도안을 제작하였다. 작품의 소재로 사용된 식물들은 다음과 같으며 3개의 대표적 문양을 도표로 정리하였다.

【표 4】 문양디자인 제작과정

이름	꽃 원본	일러스트 도안	내용
샤스타데이지			
	샤스타 데이지의 꽃말은 순진, 평화를 뜻한다. 길가에 옹기종기 피어있는 샤스타 데이지는 보는 순간 꽃말처럼 순박하고 평화로운 모습에 눈길을 끌고 한참을 머물게끔 한다. 이러한 꽃을 이용해 도안을 제작하여 이 꽃이 지닌 아름다움을 표현하고자 하였다.		

철쭉			
	철쭉은 봄이 오면 주변에서 흔히 볼 수 있으며, 어느 한 구역을 완전히 꽃 색상으로 물들일 정도로 아름다운 꽃이다. 꽃잎이 다섯 개로 분리되어 있으며 정갈한 형태를 띄고 있는 꽃들에 비해 자유로운 곡선을 가지고 있어 도안으로 제작하였을때 보다 자연스러운 느낌을 주기 때문에 이 꽃을 선택하였다.		
벚꽃			
	벚꽃은 봄의 대표적인 꽃나무로서 봄이 되면 많은 사람들이 벚꽃이 만개하기를 기다린다. 그만큼 많은 사람들에게 익숙한 꽃이기 때문에 작품의 소재로 선택하게 되었으며, 벚꽃은 각각의 꽃망울은 작지만 하나의 덩어리를 이루면서 피기 때문에 양감을 주기에도 적합하다고 생각되어 도안으로 제작하였다.		

2) 형태 제작

청화 안료로 채색된 그림과 그림자의 구도가 잘 보이도록 복잡한 형태보다는 단순한 형태 위주로 제작하였다. 컵은 옆면에서 보았을 때 직사각의 형태로서 손잡이와 어울려 미니멀한 이미지를 표현하고자 하였다. 【작품6】

접시나 벽장식의 경우 앞서 설명한 것과 마찬가지로 굴곡이 없는 평평한 형태로 제작하였고 얕은 턱을 내어 공간감을 극대화하고자 하였다. 【작품5】

식물의 실체가 그려지지 않고 그림자만 드리워지는 도안의 경우에는 조금 더 자연스러운 느낌을 담기 위해 조약돌과 같은 비정형의 원 형태로 제작하였으며 【작품8】 주병세트의 경우에는 술잔과 주병의 전 부분에 곡선으로 조각함으로써 자연스러움을 더하였다. 【작품9】

형태에 따라서는 작업이 용이한 방법으로 물레성형과 석고성형 기법을 병행하여 작업하였다.

3) 그림자 표현

그림자를 표현함에 있어 가장 중요한 부분은 그림자 안에 사색의 공간을 만드는 것이었으며, 이를 위해 가능한 부드러운 농담표현이 필요하였다. 따라서 청화기법의 농담표현에 있어서도 붓 자국이 많이 남지 않는 방법을 모색하였다. 특히 안료의 선택에 신중을 기하였는데 일반 도자 안료의 경우는 붓이 표면에 접촉이 되기에 붓 자국이 많이 남으므로 입자가 고운 안료와 차의 타닌성분이 함유된 오차를 혼합하여 기벽위에 안료가 얹어지도록 주입한 뒤 흡수시킴으로써 보다 부드러운 농담을 얻을 수 있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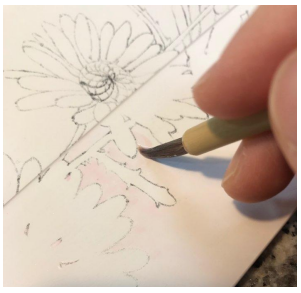
그림자 부분의 표현에 있어서는 크게 붓에 의한 농담표현과 안료에 담그는 방법 두 가지를 주로 사용하였다. 또한 발수제를 사용하여 일정한 부분에만 청화안료를 채색하였으며 붓으로 그라데이션 표현을 더함으로서 다양한 표면질감을 표현하였다. 농담표현과 담금기법에 대한 자세한 설명은 다음과 같다.

① 농담표현기법

선이 없는 그림을 그리기 위해서는 소성에서 타고 없어지는 소재를 사용하여 안료가 넘어가지 않도록 외곽선을 막아주어야 한다. 유성의 재료 또는 발수제로 그림자형상을 드로잉하여 안료의 유입을 막았으며 그 외의 문양은 선과 농담을 직접 드로잉 하였다. 그리고 선이 아닌 면을 채색할 때에는 오차를

사용하여 채색하는데, 이때 안료에 오차를 혼합하여 사용한다. 오차에는 타닌성분이 있어 안료가 넓게 퍼지지 않도록 잡아주는 역할을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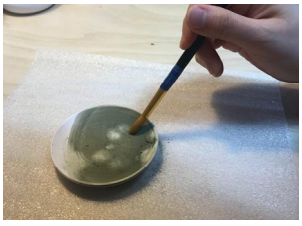
【표 5】 농담표현기법 제작과정

제작과정			
설명	안료가 넓게 퍼지지 않도록 안료에 오차를 혼합한다.	그림자 형상을 연필과 발수제 등을 이용하여 드로잉한다.	막아둔 외곽선을 따라 붓을 이용해 채색한다.

② 담금기법

담금기법을 이용할 때에는 오차가 아닌 물을 사용하였다. 넓은 면적에 안료를 올린 뒤 그림자 부분을 제외한 바탕 부분을 지워내는 작업인데, 안료를 오차에 희석하여 기물을 담글 수 있는 만큼의 많은 양을 장기간 사용하기에는 부적합하므로 안료를 물에 희석하여 사용하였다. 기물을 안료가 희석된 물에 담궈 원하는 농도가 나오면 건조 시킨 뒤 그림자부분이 아닌 빛이 반사되는 부분을 마른 붓을 이용해 털어낸다.

【표 6】 담금기법 제작과정

제작과정		 	
설명	안료가 기벽에서 쉽게 탈락되도록 물을 사용해 안료를 희석한다.	희석 된 안료에 기물을 반복적으로 담가 일정한 농담을 얻는다. (아래쪽 사진처럼 발수제를 사용하는 경우에는 발수제를 청화안료가 올라가면 안 되는 부분에 칠해 준 후 안료가 희석된 물에 담가 일정한 농담을 얻는다.)	그림자 부분을 제외한 밝은 부분을 붓으로 털어내어 그림자의 부드러운 이미지를 표현한다.

4. 시작품

[작품 1] 벚꽃 합

물레성형, 청화, 수금, 백자, 1250℃ 환원소성

ø78 × 66(h) mm, ø93 × 73(h) mm

제작의도:

봄이 왔음을 알리는 대표적인 꽃인 벚꽃은 옹기종기 모여서 덩어리를 이루며 피어난다. 합의 옆면에 1mm의 얕은 턱을 주어 위쪽은 벚꽃 그대로의 모습을 청화안료로 채색하였고, 아래쪽에는 위에 그려진 벚꽃나무의 그림자 형상이 반투명의 피사체에 의해 실루엣으로 보여지는 효과를 주었다. 청화로 그려진 벚꽃과 무언가에 가려져 은은하게 배어나오는 벚꽃의 그림자가 한 화면에 어우러져 색다른 재미를 주고자 하였고, 벚꽃의 그림자 부분은 옹기종기 모여 속닥거리는 것 같은 상상력을 불러일으킨다.

[작품 2] 벚꽃, 철쭉 화병

슬립캐스팅, 청화, 수금, 백자, 1250℃ 환원소성

ø55 × 13(h) mm

제작의도:

벚꽃과 철쭉만의 사실적 느낌을 보기 위해 그림자를 제외한 사물만 드로잉하여 제작한 화병이다. 봄에 피어나는 철쭉과 벚꽃을 각 형태에 맞게 배치하였으며, 꽃 그림에 어울릴 수 있는 유선형으로 형태로 제작하였으며, 한 송이 꽃을 꽂아 두거나 디퓨져 용기로 사용하기 용이하도록 입구가 좁은 화병으로 제작하였다.

[작품 3] 철쭉 접시

물레성형, 청화, 수금, 백자, 1250℃ 환원소성

ø165 × 38(h) mm

제작의도:

봄이 되면 주변에 흔하게 피어있는 철쭉을 소재로 접시에 표현하였다. 빛의 직접적 투사에 의한 형상화 작업으로 후면에 그대로 투영된 그림자를 표현하였고, 청화 안료 중 청색을 내는 안료로 철쭉을 표현하였으며, 그림자는 어두운 것이라는 인식과는 반대로 뒤로 떨어지는 그림자 부분에 조금 더 밝은 하늘빛의 안료를 사용하여 그림자에 대한 인식을 밝고 긍정적인 것으로 변화시키려는 의도를 담았다.

[작품 4] 매화 접시

물레성형, 청화, 수금, 백자, 1250℃ 환원소성

ø228 × 45(h) mm

제작의도:

매화나무의 형태와 범어사 팔상전의 매화꽃살문의 그림자가 함께 어우러지도록 표현한 접시이다. 매화나무의 그림자는 생략하고 그 대신 꽃살문의 그림자가 드리워짐으로서 앞에 있는 꽃과 후면의 격자무늬의 그림자가 어떤 연관성이 있음을 간접적으로 표현하려는 의도를 담았다. 매화나무는 전통 청화기법을 이용하여 채색하였고 꽃살문의 그림자는 외곽선을 그리지 않고 청화 안료로만 채색하였다.

[작품 5] Cherry blossoms plate
물레성형, 청화, 수금, 백자, 1250℃ 환원소성
ø275 × 12(h) mm

제작의도:

벚꽃나무를 살펴보면 꽃들이 옹기종기 무리지어 피어나는 것을 볼 수 있다. 꽃들은 머리를 맞대고 어떤 이야기를 나누고 있을 것 같은 상상을 불러일으키며, 반투명의 피사체를 통해 투영되는 벚꽃의 그림자 실루엣은 복잡한 형태가 단순화되면서 더욱 더 비밀스러운 느낌을 전하고 있다. 이렇게 꽃과 그림자의 면을 분리하기 위해 얕은 턱을 내어 접시를 제작하였고, 그림자 부분의 정확한 표현을 위해 발수제를 사용하여 안료가 그림자 부분에만 안착 되도록 하였다.

[작품 6] Blooming shadow cup
슬립캐스팅, 청화, 백자, 1250℃ 환원소성
ø60 × 100(h) mm

제작의도:

빛의 직접적 투사에 의해 옆으로 길게 늘어나는 그림자를 표현하기 위해 형태는 간결하게 일자로 떨어지는 컵으로 제작하였고, 컵의 옆면을 따라 드리우는 그림자는 그림자의 속성중 확장성을 명확히 보여준다. 컵의 후면으로 갈수록 빈공간 같지만 길게 늘어난 그림자로 공간이 가득 채워져 색다른 재미를 주고자 하였고, 또한 뒤쪽에 야자잎이 그려진 컵은 각자의 야자잎에 각각의 그림자가 떨어지면서 후면에 드리우는 그림자와는 또 다른 입체감과 공간감을 연출한다.

[작품 7] Daisy plate
물레성형, 청화, 백자, 1250℃ 환원소성
ø290 × 18(h) mm

제작의도:

그림자 상을 투영시키는 피사체가 앞쪽에 배치되어 실루엣으로 보여지는 형상화 작업 중 하나이다. 이 작업은 그림자의 속성 중 단순성을 보여주며 하나의 도안이 면의 분할을 통해 꽃과 그림자가 조화를 이루면서 동시에 분리되어 보이도록 표현하였고, 가려진 부분의 그림자를 통해 옹기종기 빼곡하게 배치된 데이지 꽃 사이의 여유공간을 마련하고자 하였다. 그림자 부분은 발수제를 사용하여 그림자 외의 부분을 막아준 뒤 청화 안료로 채색하였다.

[작품 8] 드리우다
슬립캐스팅, 청화, 백자, 1250℃ 환원소성
ø225 × 210 × 30(h) mm, ø225 × 265 × 30(h) mm

제작의도:

조약돌과 같은 비정형의 형태위로 떨어지는 나뭇잎의 그림자를 표현하였다. 빛의 직접적 투사에 의해 생겨난 그림자는 발수제로 바탕 부분을 막아준 뒤 담금기법을 사용하여 안료의 맺히는 현상과 안료가 흐르면서 나타나는 자연적인 무늬를 있는 그대로 나타냄으로써 졸졸 흐르는 시냇가의 조약돌 위로 떨어지는 나무의 그림자처럼 자연스러운 아름다움을 나타내고자 하였다.

[작품 9] 나무아래 주병세트
슬립캐스팅, 청화, 백자, 1250℃ 환원소성
주병 ø82 × 140(h)mm, 잔 ø53 × 42(h) mm

나뭇잎이 무성한 나무에 광원이 되는 햇빛이 직접 투사되어 그 아래로 드리우는 나무 그늘을 표현하였다. 담금기법을 사용하여 안료를 기벽에 올린 뒤 빛 부분을 붓으로 털어내어 제작 하였으며, 자연현상 속에서 나뭇잎은 바람에 흔들리며 그에 따른 그림자도 함께 일렁이는데 이렇게 금방이라도 일렁일 것 같은 생동감 있는 느낌을 도자기에 표현하기 위하여 정해진 도안 없이 즉흥적으로 묘사하였다.

[작품 10] 꽃의 내면

백자, 물레성형, 1260℃ 환원소성

95 × 384(h)mm

제작 의도 :

봄, 여름, 가을, 겨울에 피어나는 꽃과 식물들을 이용하여 도판에 표현하였다. 봄에는 철쭉을 여름에는 데이지, 가을에는 강아지풀, 그리고 겨울에는 목화를 그림의 대상으로 설정하였으며 각 계절의 느낌을 더욱 극대화하기 위하여 여러 가지 색감을 내는 청화 안료를 사용하였다. 블라인드를 통해 보여지는 식물의 그림자와 가려지지 않은 식물의 반쪽 면을 함께 도판에 배치함으로서 식물과 그림자의 형상이 함께 어우러지도록 하였고, 각각의 식물이 보여주는 그림자는 각자 다른 느낌을 전달한다.

[작품 11] 창가에서

백자, 물레성형, 1260℃ 환원소성

each 160 × 160 × 7(h)mm

제작의도:

창가에서 놓여진 식물과 창틀 혹은 블라인드 등의 풍경을 그림으로 표현하였다. 빛이 창문을 통해 직접적으로 투사되며 그로 인해 창의 그림자와 그 앞에 배치된 식물의 그림자가 함께 드리워진다. 아늑한 실내에 있는 듯한 느낌을 주며, 그림자를 통해 빛의 방향을 가늠하고 식물과 함께 식물의 그림자 그리고 주변 배경이 어느 곳인지 상상하며 그림 안에 머무르는 시간을 마련하고자 하였다.

Ⅲ. 결 론

모든 사물은 광원의 특징에 의해 다양한 그림자 형상을 가지고 있으며 그 그림자는 대상이 되는 사물의 배후에 드리워지는 그늘로서 실제로 존재하고 있지 않지만 사물과 함께 있기 때문에 그 사물의 윤곽을 더 돋보이도록 해주며 대상의 상태나 주변상황을 예측 또는 확인 할 수 있는 매개체가 된다. 따라서 사물이나 모든 자연현상들(빛, 바람, 공기, 온도 등)을 직접적으로 표현하기에는 한계가 있기에 그림자를 통한 간접적인 표현으로 빛, 온도, 바람 등을 비롯한 다양한 감정을 느낄 수 있게 함으로서 바쁘게 살아가는 현대인들에게 휴식과 편안한 공간을 마련해 줄 수 있다고 생각된다. 이러한 그림자의 표현은 예술 작품 또는 디자인의 장식적 역할로서도 그 가능성이 크다고 할 수 있다.

본 연구에서는 식물과 그 그림자 형상이 들어간 테이블웨어와 벽장식 같은 오브제를 제작함으로서 그림자를 통해 빛을 느끼고 그 따스함과 편안함을 전달하고자 하였으며, 다양한 그림자 형상을 자연광과 인공조명 아래 비추어 보며 그림자가 사물과 도자기 위에 투영되었을 때 어떠한 효과가 나타나는지 살펴보았다. 이러한 사물과 그림자의 배치를 통해 도자기 장식 표현에 있어서 사물만 배치된 평면적인 장식 이상의 공간감과 감성을 표현 할 수 있는 가능성을 확인하였다.

그림자의 특성은 시간성, 단순성, 확장성으로 나누어 살펴보았고 이를 바탕으로 사물과 그림자의 투영관계를 빛의 투사와 관찰자의 위치에 의한 형상과 느낌의 변화를 관찰하여 그림자의 형상화작업으로서 「직접적관찰방법」과 「간접적관찰방법」이라는 방법론을 제시하였다. 이를 바탕으로 빛의 투영과 투사에 의한 사물 형상의 복합구성을 통하여 새로운 문양 제작시도와 도자장식방법을 제안하였다.

본 연구에서 그림자 표현을 통해 얻은 결과는 도자 장식 기법에 있어 단순히 아름다운 장식을 떠나 보다 깊이 있는 공간감 구성이 가능하다는 것과 연구자의 해석과 감성을 토대로 사물이 갖고 있는 내면의 이야기와 감정의 전달

이 가능하다는 것을 확인 할 수 있었다. 식물의 그림자가 가져다주는 아름다운 힘은 사람의 마음을 포근하고 편안하게 만들어주고 삶의 활력을 주기에 충분하다고 생각된다. '빛'이라는 화가가 단숨에 그려내는 식물의 그림자를 사람의 손을 이용해 청화기법으로 표현하는 것은 많은 테크닉과 노력이 필요하다는 점을 경험할 수 있었다. 그림자를 표현하는 과정에서 어려움을 겪을수록 아름다운 풍경을 만들어내는 자연에 대한 경이로움과 고마움을 느낄 수 있었으며, 또한 연구자와 마찬가지로 작품을 보는 이가 빛과 그림자라는 자연현상에 대해 생각할 수 있는 여지와 그림자가 가져다주는 편안함을 느낄 수 있기를 기대하며 연구를 진행하였다.

본 논문에서 시도한 도자 장식 기법은 사물의 도안이 일러스트레이터 프로그램을 통해 패턴화 되어 다소 평면적으로 다가오는 아쉬움이 있었다. 금후의 연구에서는 그림자의 대상이 되는 사물의 그림에 좀 더 자연스럽고 입체감 있는 도안을 제작하여 이를 보완하고자 하며, 또한 그림자 형상 표현에 있어서도 좀 더 다양한 그림자 속성연구와 기법연구를 통해 보다 자연스러운 표현으로 진행하고자 한다.

참 고 문 헌

<학위논문>

- 손현정, 〈그림자의 의미 작용 : 재현과 변형〉
  홍익대학교 석사논문, 2013
- 임선녀, 〈패션디자인에 표현된 그림자의 조형미 연구〉
  홍익대학교 석사논문, 2015
- 김민혜, 〈그림자를 통한 일상적 순간의 표현 연구〉
  서울대학교 석사논문, 2014
- 박연오, 〈빛과 그림자의 변주〉
  이화여자대학교 석사논문, 2015
- 이은미, 〈일본 아리타(有田)지역의 청화기법을 이용한 실내도자장식에 관한 연구〉 성신여자대학교 석사논문, 2011

<웹사이트>

- 국립국어원 표준국어대사전 (http://stdweb2.korean.go.kr)

- 두산백과사전 두피디아 (http://www.doopedia.co.kr)

ABSTRACT

A study of under glaze ornamental by using shadows.

Lee Hyunji
Department of Crafts
Graduates school of
Sungshin Women's University

From the sunlight and shadows of the objects it touches to the sound that the breeze makes as it brushes against the leaves, all the natural phenomena that occur around us never cease to change and coexist with us amid our hectic daily lives. These naturally occurring phenomena draw a stark contrast with our modern lives that are filled with artificiality and machines, and this contrast enhances our sense of wellbeing and sparks inspiration when we are surrounded by nature.

Out of all the amazing natural phenomena, this study focuses on a shadow and the qualities it brings to suggest the potential of ceramics not just for their ornamental function as commercial merchandise but as an *objet* that creates a sense of space and brings forth a powerful emotional impact.

In the main body of the paper, I examined the objective facts concerning a shadow, such as its definition and characteristics. Instead of focusing on the

commonly-perceived association between a shadow and the "dark side," I interpreted a shadow in a positive light and applied this interpretation to my artworks, such as the calmness we feel when resting under the shadow of a tree. I distinguished and defined a shadow in three broad categories—in terms of temporality, simplicity, and expandability—and provided specific examples for each category to show how these qualities can be applied. Also, I examined the projection relations between an object and its shadow through the examples of the various shapes of a shadow that can be observed in everyday life. In regard to a light source and the projection of an object in particular, I showed different observing methods for the different positions of the observer and created a motif based on the impressions drawn from the resulting changes of a shadow. Moreover, I utilized Cheonghwa techniques to confirm the possibility of using the qualities of a shadow in creating designs for ceramics.

My pieces are blue-and-white porcelain, which are made with blue pigments on white porcelain, and I mainly use the shadows created by plants. My designs are inspired by the insight I gained from studying the projection relations between an object and its shadow. In regard to form, I employed simplicity with shapes such as a flat board or a cylinder in order to maximize the effect of a shadow. Depending on the production requirements of different shapes, I used either slip casting or jiggering. To illustrate a shadow, I mainly used shading and immersion techniques with blue pigments. I also experimented with the use of water repellent and brush strokes to develop the novel techniques of ceramic ornamentation. By examining a shadow's qualities in depth and incorporating these qualities into

magnifying the sentiments induced by a shadow, I found that ceramics can not only be used for practical purposes in everyday life but serve as a medium of expression.